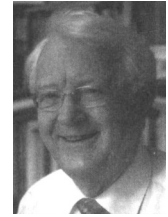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제 2 종교개혁 (De Nadere Reformat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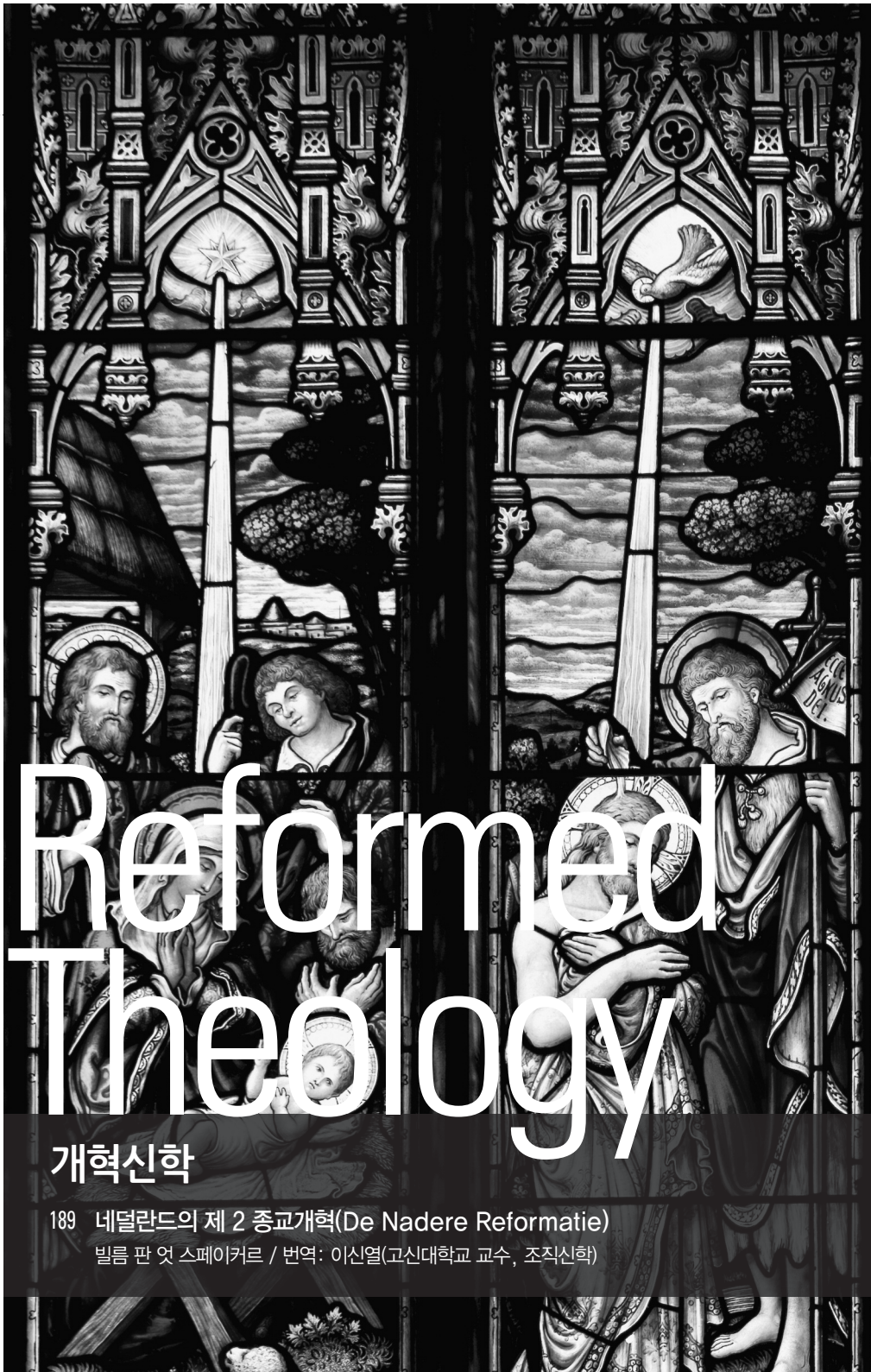


빌름 판 엷 스페이커르

번역: 이신열(고신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이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사인 Willem van't Spijker(1926-) 박사의 *De verzegling met de Heilige Geest* (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라는 단행본의 번역으로 지난 갱신과 부흥 5호와 연결된다. 판 엷 스페이커르교수는 1970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셔의 직분론'(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 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틀레흐트(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교개혁교회(Christelijk Gereformeerde Ke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아플도른 신학대학(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칼빈과 부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겼다.

종교개혁에서부터 제 2 종교개혁으로 관심을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명하기가 단순하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들



Reformed Theology

개혁신학

189 네덜란드의 제 2 종교개혁(De Nadere Reformatie)

빌름 판 엷 스페이커르 / 번역: 이신열(고신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은 종교개혁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발생했던 것은 실제적 전이(transformation)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단지 강조점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제 2 종교개혁이란 네덜란드 교회사에서 발생했던 활발한 운동으로서 네덜란드인들의 생활 속에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시작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간단한 정의로서 이 정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 부셔,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기를 원했다. 이들 이후 제 2 세대나 제 3 세대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사명을 통감했다. 제 2 종교개혁은 네덜란드의 고유한 운동이었는데 이는 동시대 영국과 독일에서 진행되었던 운동들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다. 동시대에 다른 현상들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특정한 공통적인 영적 기류가 이 시대를 지배했던 사실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인문주의, 루터주의, 츠빙글리주의, 그리고 재세례파가 각각 역할을 수행했던 몇몇 준비단계를 거쳐서 네덜란드 상황에서 칼빈주의는 흥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칼빈주의는 네덜란드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신정주의적(theocratic) 이상이 분명히 인식되었으며 네덜란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마음의 참된 경건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율법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내적 헌신 또는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열정을 제공하는 내면적 상태를 가리킨다. 이 모든 것 위에 신앙의 확신에 관한 질문에 특별한 위치가 부여되었다.

여기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것은 신앙의 확신을 둘러싼 질문이 제 2 종교개혁에 핵심적인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제 2 종교개혁의 저작물들을

살펴보면 신앙의 확신이 거듭 언급되는 주제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놀랄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종교개혁도 확신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되었다. 루터는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알기 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확신에 관한 질문은 중요한 질문에 해당된다. 로마 가톨릭은 특별히 구원과 신앙의 확실한 지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2 종교개혁은 기독교인이 확신을 추구하고 또한 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과 전적으로 동일한 사고를 지닌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신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전혀 다른 강조점이 주어지게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페인과의 투쟁에 있어서 처음 몇 년은 전투에 임했던 자들의 직접적 증언으로 가득 채워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문제를 오래 동안 그리고 깊이 파고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자유에 관한 투쟁에 있어서 마음의 종교가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지니고 초창기 칼빈주의자들이 투쟁에 임했다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을 때, 그리고 종교개혁에 있어서 더 이상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을 때, 대중의 내적 확신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이와 관련해서 초기 중세에 사람들의 삶이 기독교적 정신에 의해서 전혀 잠식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인들의 삶도 개혁주의적으로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삶의 모습들에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 축제, 파티 등의 행사는 순수한 정신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도덕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며 엄청난 압박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배후에 마음의 경건을 강조하는 내면적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문화와 삶의 체험에 대한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의 확신에 관한 질문이 순수한 개혁주의적 질문으로 남게 되었는가를,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질문이 또한 전혀 다르게 간주되기에 이르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마음의 언어가 언급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마음이 고유의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것을 망각해 버렸다. 오늘날도 실제로 참된 신앙과 삶의 체험에 관련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 2 종교개혁의 목회 심리학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의 역사는 우리에게 개혁신앙의 다양성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이끈다. 교의학적 또는 신앙고백적 용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차이점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오늘날의 현안들의 뿌리들을 있는 그대로 파헤칠 수도 있다. 종교개혁과 제 2 종교개혁의 판단이 인간이 종교적 담화를 인식할 수 있는 특유한 관습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 2 종교개혁 내에 어떤 경향이 존재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가 이를 살펴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 타팽 (Jean Taffin, ca 1529-1602)

제 2 종교개혁은 흔히 영국의 청교도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네덜란드 교회사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이런 동기가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식될 수 있다고 밝힌다. 중세의 경건 서적들의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 비롯

된 세력 또한 결코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초기 칼빈주의 설교자들은 그들의 설교와 저서들에서 제 2 종교개혁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종교개혁, 특히 칼빈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특징을 그 자체 내에 이미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예는 오렌지의 윌리엄 공(Prince of William of Orange)의 궁중설교자로 널리 알려졌던 장 타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저서들 가운데서 다음의 두 권은 언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삶의 회개에 관하여 (Van de boetvaardigheid des levens)』이며 둘째는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 (Merkttekenen der kinderen Gods)』이다. 이 두 권은 모두 영적 삶의 방향의 언어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네덜란드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종교개혁이 이 땅에 도입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까지 스며들었는가? 거기에서 도덕적 능력이 도출되어야 한다. “우리가 개혁 종교에 대한 신앙고백에 임할 때, 예를 들면 개혁과 회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의복과 그 사용에 있어서 사치와 허영이 증가하는 것 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과 교리를 동시에 의심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건너온 자들은 이러한 관습이 더욱 악화되는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은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메노나이트들(재세례파 교도들로서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 메노 시몬스(Menno Simons)를 추종하는 자들 -역자 주)과 우리의 교리에서 멀어지려는 자들도 자신들의 오류를 고집할 이유가 거의 없다...”

그 의미는 아주 분명하다. 타팽은 이 사람들이 만약 이런 삶의 방식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혁주의 신조를 신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준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회개는 모든 삶에 걸쳐 나타나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적 신앙이 압박받는 것은 아닐까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타팡은 모든 독자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침착한 어조로 경고한다. 제 2 종교개혁 전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주제들이 언급된다. 이 주제는 가정에서의 삶,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목회자의 교회의 성도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요약하자면,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의 차원으로 이해된다.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두 번째 저서에서 타팡은 신앙과 그 어려움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교회는 박해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신앙은 투쟁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이를 알고 느낄 수 있다. “기초가 확립된다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축복이며 그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도록 준비하거나 또는 그 영광을 더욱 증대시키는 수단, 보조수단, 그리고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자기가 택한 자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특히 그가 우리를 아시는, 즉 누가 그의 자녀인가를 아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수단이 활용된다. 여기에는 먼저 신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느끼는 전조와 증거로 구성되는 내적 수단이 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해하게 되는 가시적인 외적 수단도 있다.

내적 수단에 관해서 타팡은 우리 안의 성령의 열매, 행위, 그리고 역사를 언급하는데 이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내적 증거에 해당된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증거하신다. 두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축

복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증거를 지닌 사람은 자신이 성령에 속한 자이며 또한 그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게 된다.

타팡은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언급한다. 신앙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보증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도록 이끈다.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약속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는데 이는 먼저 지불금액의 확실한 일부분이며, 또한 확실성과 관련해서는 이 구매가 취소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증거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평화와 기쁨을 제공하시는 성령 또한 그러하다. 그는 이러한 시작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관련한 확신을 제공하시는 보증인데 이를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자기 영광에 이르도록 자기 기업을 주신다. 그리고 천상의 기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받으신다.” 이 인용문에서 타팡은 성령의 사역을 우리로부터 영원한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 생각과 더불어 에베소서 1:13 이하에 나타난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가르침의 범주 내에 머무른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며 또한 그의 영광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받으실 것이라는 표징에 해당된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은 또한 우리가 이를 안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증된다.

타팡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게 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선택을 언급하여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종교개혁 자체가 제기했던 제한의 범주 내에 머무른다. 이는 이미 로마서 8:29 이하에 나타난 구원의 순서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

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타팽은 종교개혁자들도 사용했던 표현인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아름다운 상승'을 언급한다.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의해서만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를 달리 칭의함을 받는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칭의와 소명을 선택과 관련지을 수 있게 된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선택은 소명과 칭의를 통해서 영화로 나아간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은 실현 가능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앙으로 우리는 사죄 받았음을 깨닫게 된다. 칭의가 있는 곳, 바로 그 곳에만 선택의 기초가 발견되며, 의심할 수 없는 양자삼음이 존재한다.

타팽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호들갑스럽게 다룰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던 클레어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irvaux)를 언급한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만드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과연 그가 이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베르나르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대답했다. “여기에서 신앙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실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때, 이는 영생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예정의 실행 또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클레어보의 베르나르에게 신비주의자의 직접적인 확신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는 특정한 방식으로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가는데 버나드는 어거스틴에게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참고 견디도록 하자. 우리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아가서 천상의 왕이 머무시는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학문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놓여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선

택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관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고가 배경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간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직접적 확신을 통해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둘째가 더욱 중요한데, 인간은 단계적으로 신앙을 통해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베르나르에게 이는 참된 사실일 수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택과 그에 대한 믿음을 별개로 생각하는 타팽에게는 아니었다. 신앙은 항상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그리고 이 신앙은 사죄에 참여하고 그 후로 선택의 위로를 지니게 된다. 이는 선택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확신이 모든 것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선택에 대한 신앙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확신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사죄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마음에 평화를 제공하고, 이러한 평화가 있는 곳에 성령의 사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양심의 평정은 양자됨의 결과이자 열매이며, 내적 표지에 해당된다. 표지로 간주될 수 있는 또 다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에 해당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자 증명이다. 신앙의 또 다른 열매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드리는 애정에 해당된다. 이 표지는 성령의 임재를 보여준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팽은 다음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달빛의 선명함은 태양빛의 증거에 해당된다. 여름에 돌이 뜨거워지는 것은 태양이 떠올랐다는 증거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석탄의 열과 빛이 거기에 불이 있음을 증명하듯이, 몸의 움직임과 행위는 몸이 살아있고 거기에 영혼이 있음에 대한 확실한 증명에 해당되듯이, 성령에서 비롯되고 우리가 이를 느끼게 되는 신앙과 증생은 우

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명이요 열매요 사역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평화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안식(신앙에 의한 칭의를 통해서 체험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애정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삶을 개선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열정을 지니기를 원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나는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양심적인 증거이며 내적 표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표지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답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이 타팽에게 논리적 결론의 문제이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실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태양이 비취는 거기에 따스함이 있다.

내 마음 속에서 나는 평화와 양심의 평정을 느낀다. 게다가 은혜의 태양이 내 마음 속에 비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나 타팽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그가 신앙과 그 열매를 성령의 사역으로 논의할 때, 그 신앙이 곧 칭의를 제공하며 자녀됨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신앙 논리의 결론이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신앙의 표식 또는 표지는 ‘뒤로부터’(achteraf = afterwards) 주어지는 표지이며 ‘뒤로부터’ 주어지는 표지에 해당된다. 이는 신앙 이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따라 주어진다. 다른 신앙이 아닌 바로 이 신앙만이 영적 기쁨과 더불어 표지를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도록 만든다. 타팽은 결코 신앙과 별개이거나 신앙의 확실성을 유도해내는 논리적 방법론을 논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의 이런 표식이 나중에 해체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타팽이 기독교인의 표지(그는 이런 내적 표지라고 부른다)와 교회의 표지(외적 표지라고 불리워지는)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외적 표식을 우리가 교회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구성원

이라는 사실에서 찾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이며 또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며,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임이라고 부른다.” 신자는 산 돌로 불리워지며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져 간다. 깊은 본질적 차원에 있어서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택자들은 “지상에 살았거나 또는 지금 살고 있거나 세상의 종말까지 살게 될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택자들로 인해 교회로 불리워졌던 모임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택자들은 교회 내에,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인해 존재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임 또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보화와 기업된 자들과 교제를 가지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영생의 유업을 지닌 자들로 믿어야 할 것이다.”

타팽은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표지에 관해서 논의한다. 그에게 이 표지는 셋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이며, 둘째는 성례의 집행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세 번째 표지와 관련하여 타팽이 신앙고백서가 교회의 표지로서 교회의 치리를 언급한 것과는 다른 견해를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의 사고는 신앙고백서와 일치한다. 이는 그가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시점에 살았으며 또한 이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의 표지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교회의 표지를 함께 언급한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이상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내적 표지는 쉽게 수용할 수 있지만, 교회의 표지와 이에 속한 것들이 교회 구성원의 자격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 위험한 외적인 것들로 보이지 않는가? 우리 견해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을 잘못된 기초위에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타팽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즉 내적 및 외적 표지를 상호 연관시키는가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한다.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순수한 설교이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신다. 그는 선한 목자이므로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타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이다.” 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그의 평화와 화해를 제공하시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말씀을 듣고 이를 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이런 기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신다.” 타팽은 세례와 성찬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논리 전개 방식을 사용한다.

타팽에게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 번째 표지도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진리 안에서 부를 수 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지만 타팽은 이에 대해서 조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교회의 개별 구성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를 확신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다른 구성원도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타팽이 교회 안에 거짓으로 가장한 자들, 즉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심한 적이 없는 위선자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인가? 모든 교회 출석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간주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타팽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다

음과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가 혹시 위선자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했다가 나중에 이런 징후를 나타내고 버림받은 자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추측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사랑과 모순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사랑의 본질에는 다른 것과 더불어 타인을 향해서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속한다.”

따라서 교회를 버리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가장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그에 의해 양육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교회에 의해서 양육 받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 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양식으로 양육 받은 자들은, 이런 외적 표지에 의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생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간주되어야 한다.”

타팽의 저서들을 새롭게 편집해서 출판하여 우리가 이를 고마운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엑살토(K. Exalto)는 이 주제가 오용될 위험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타팽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가난하고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이 책들을 집필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아직 회중들의 교회가 아니었으며 이는 후대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타팽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 없이 경청될 수 없는 교회를 발견했고 바로 이 교회를 위해 글을 남겼다. 박해는 더욱 격렬해졌다. 이런 상황 아래 교회는 거의 모든 교양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계화된 교회와는 사정이 달랐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양식으로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야 올바른 것이 아닌가? 성례의 진리를 즐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로마서 10장이 주님의 이름

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는가? 교회의 표지는 직접적으로 신자의 영적 생활과 관계된다.

타팽이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고백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시도와 동일한 것이다. 그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즉 복음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순수한 집행, 그리고 교회 치리의 시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이 표지가 전적으로 결여되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없다. 이 세 가지 표지는 원래 말씀의 분명한 선포라는 하나의 표지로 집약될 수 있다. 이것이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거기에 교회에 생성되고 성장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앙고백서가 교회의 표지에 관해서 말하는 바이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신앙고백서는 여기에 기독교인의 표지를 하나 더 추가한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 즉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표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죄를 버리고, 의를 좇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그 정욕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상은 믿음에서부터 그들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런 표지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것이 완전히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상 완전은 이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가 발견되면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데 그 분 안에 그 분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죄용서가 주어진다.

같은 맥락에서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표지와 기독교인의 표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를 고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합하다. 사람이 소수의 구원을 완전히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지가 아주 강하게 강조될 수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인격적 신앙관계가 상실될 수 있다. 이를 굉장한 위험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위험도 존재한다.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과 신앙의 확신에 관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열중하다가 이것이 설교와 은혜의 방편의 사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신앙고백서가 참된 교회의 표지와 참된 신자의 표지를 하나로 간주한 사실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우리가 만약 이 두 주제 중 하나를 망각해 버린다면, 그 가운데 어떤 하나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의 진리가 마음속에서 그 능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순수한 설교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나 우리도 타팽처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강렬해져서 격분에 도달할 때, 그 때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이리 떼 속에 양과 같이 보내노라.” 이는 신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 있으며 함께 행하는 자들이 낙오하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제 하나님의 손아래 놓인 은혜의 방편으로서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러난다. 아마도 우리는 여기에서 개인적 확신을 추구하는 자는 교회에서 제공되는 이 방편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타팽은 신앙의 표지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표지가 신앙의 확신에 도달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우리가 이러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다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타팽이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장은 다음의 제목을 지니고 있다: “교회의 개별 구성원이 어떻게 교회의 표지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자신의 양자됨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 교회의 표지는 여기에 역할을 담당한다. 사람은 이를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의 적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적용'이라는 표현은 이 경우에 개인적 참여를 카리킨다는 사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팽은 이런 방식으로 확신을 교회의 표지로 돌려놓았다. "여기에서 목표는 우리가 위로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갖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실성과 복음의 설교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논쟁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이 문제가 오늘날 개혁교회들을 분리시킨다는 질문은 타팽에 의해서 전혀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답된다. 우리는 그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견해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타팽이 어떻게 묵묵적으로 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했는가를 타팽 자신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인정하는 첫 번째 항의는 가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내가 신앙의 확신에 도달하게 될 때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기에 합당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가? 타팽은 이 질문이 어떤 사람을 의심에서 절망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한 질문으로 받아들인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택자의 수에 포함되는가를 질문한다.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는가?

타팽은 우리가 전적으로 복음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만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추구해야 한다. 단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사랑하실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의 작정과 의지를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효력 있게 하신다. 복음은 4가지 사실을 증거 한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다. 둘째,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은 그를 믿는데서 발견된다. 셋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도록 만드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많은 증거를 믿기를 원하신다.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믿게 되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가 계시되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편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은 들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취한다. 구원이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이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는 대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자 안에서 순종함을 가리킨다. 당신이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주는데 이는 그가 당신에게서 바라는 것이다. 당신이 그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이 이를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당신이 인친다."

우리는 루터를 연상하게 되며 타팽의 주장에서 순수한 종교개혁적 요소를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의 제 1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이다. 이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그는 거짓말하질 수 없다. 그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그가 의도하신 것이었는가를 질문하기를 우리가 말할 수도, 원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참되심을 인친다. 종교개혁적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기초해 있다. 오직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타팽이 이는 개인적 신앙에 관한 것이라고 계속 확신시키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여전히 종교개혁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루터는 이는 복음을 통해서 다음의 작은 단어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나의(mijn)**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 2 종교개혁이 주장하는 신앙에 있어서 '**나의**'라는 점점 더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가 오늘날 구원의 적용을 다시 강조하고자 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에 관한 질문은 “약속의 적용을 위한 토대가 무엇인가?” 로 정의된다.

타팽은 복음에서 우리의 이름이 단지 일반적으로 언급되었다고 확실하게 밝힌다. 그러나 거기에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는 베드로, 고넬료,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잘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정말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이 소망을 제공한다. 내 이름이 어떻게 불리워 지든 간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널리 알려진 마태복음 11:28 말씀에서 타팽은 동일한 지칭을 발견한다. 타팽은 ‘다’ 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그분에 의해서 ‘다’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가 말씀하셨고 그가 나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신앙의 토대는 은혜의 일반적 제공에 놓여 있는데 타팽 또한 이를 파악하고 있다.

후대에 이르러 강조점이 옮겨지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다’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복음으로부터 복음을 받는 인간에게,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에게, 약속에서 그 약속을 믿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 관심이 옮겨졌다. 타팽은 말씀으로부터 신앙으로 그리고 신자에게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로의 전이를 아직 알지 못했다. 제 2 종교개혁은 관심을 서서히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후대에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타팽에게 이 주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설교에서 설교되고 신앙으로 수용되거나 거절되는 ‘일반적 사죄’를 언급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설교되도록 허

락하시지만, 이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바깥으로 쫓겨 난 자이다.

사실상 이는 순수한 설교에 관한 것이다. 설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 옳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달리 말하자면, 참된 교회 내의 이런 출석자는 교회에서 설교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설교자가 단상에 올라갈 때, 그는 그의 청중의 피에 대해서 무지해야 한다. 그리고 회중은 교회를 나가서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에 표지의 역할이 존재한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는 복음, 즉 개인적으로 믿음을 통해 적용되는 ‘일반적 사죄’에 놓여 있다. 신앙의 표지는 스스로를 복음에 맡기고 다른 것에 맡기지 않는 것이다. 타팽은 개신교가 존재를 둘러싼 심각한 투쟁을 발전시켰을 시기에 기독교인의 표지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박해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던 도시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그들은 귀환할 수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권력기관에 의해서 일반적 사죄가 선포되기도 하였다. 교회적 모임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사죄를 활용했는가 또는 신자로 인식되었는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타팽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발생했던 일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제 일반적 사죄의 이미지를 그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만약 300명 내지 400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인해 도시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일반적 사죄가 선포될 것이다. 이는 도시에서 추방된 모든 자들에게 사면되어 귀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되찾고 그 영예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추방된 자들 중 한 명이며 당신에게 자유를 선포할 사람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군주라고 가정해보자. 비록 당신의 이름이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이 이 사죄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도시로 귀환하여 당신의 재산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가 아담의 범죄에 의해 천국에서 추방되었지만, 이제 추방된 자들이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시적 휴가와 더불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과 더불어 일반적 사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복음의 선포는 이런 방식의 일반적 사죄에 해당된다. 추방을 무효화하는 것은 일반적 사죄와 더불어 공포된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많은 희생, 즉 그의 소중한 피를 요구했다. 당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되돌아가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휴가를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타팽은 당신의 세례명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지만 당신의 이름 또한 ‘추방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을 향한 그의 뜻이 다른 방법이 아닌 그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다.

성례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이 이름 위에 새겨진다. 세례는 은혜의 수여를 알리는 인봉된 편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성찬은 신앙 안에서 당신이 강화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악마가 우리를 대항하여 싸울 때,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사탄아, 내가 성찬에 참여하였으며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떤 것을 보았고 만졌으며 먹었는데 네가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표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분명한 서약이며 인장이다. 그리고 일반적 사죄는 여기에서 이름으로 새겨진다. 타팽에게 신앙의 확신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의 약속위에 놓이는데 이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이제 타팽에게 그가 너무 성급하게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교회 내에 전혀 믿지 않는 자들과 가장해서 믿는 척 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러한 그의 주장이 표면적인 것은 아닌가?

그가 약속과 일반적 사죄의 설교에, 참된 은혜와 거짓된 은혜를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전제조건들과 약속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에게 이를 적용하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만드시 그가 제공해야 하는가?

실제로 그 이후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확신들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주 잘못된 사고에서 출발했다. 사람들은 약속이 참된 신자들 또는 에게만 실현되거나 택자들에게만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약속은 참된 신자들에게만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록 은혜의 일반적 제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약속은 회심한 자들, 수고한 자들, 무거운 짐 진 자들, 자신의 죄를 알고 이를 느끼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해될 수 있지만, 이는 달리는 말을 마차 뒤에서 긴장시키는 것이다(사태를 악화시킨다 - 역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약속과 더불어 참된 신앙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또한 현실성을 지닌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에 기초를 둔 현실성에 관해서 이를 약속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실제로 영원한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불신앙의 열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약속을 모든 사람이 참된 신앙과 더불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이제 덜 신뢰할만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가?

타팽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는 교회에 외적인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았으며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최후에 위선자로 드러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고 성례를 통해 인쳐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은 불확실하고 의심쩍은 것임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 말하실 수 없다. 그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이며 구체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의 책임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

공된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불명예를 입히며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치부한다. 인간의 불신앙을 전적으로 신뢰받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말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팽은 아주 간단한 이미지로 불신앙의 잘못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태양은 빛을 발하기를 멈추지 않는데, 자기 눈을 감아서 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태양빛의 능력은 우리의 시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눈을 감은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타팽은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한다. 음식은 요긴하며 영양을 제공하지만 위장이 좋지 못한 사람은 음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타팽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전혀 깊은 것이 아님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를 향한 그의 호의에 관한 복음에 나타난 진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뜻도 그러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도 존재한다.

타팽은 일반적 사죄에 관한 이미지들을 다시금 활용한다. 신뢰할만한 군주에 의해 선포된 사죄선언의 서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추방된 채로 남아있는 것을 그 군주의 탓으로 돌리기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 것이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

타팽은 별도의 장을 할애해서 어떤 사람이 내세울만한 모든 종류의 불만, 즉 신앙의 투쟁에 관한 곤란함, 의심의 능력과 내적 불안에 대해서 재차 다룬다. 의심하는 자들과 이로 인해 몸부림치는 자들과의 목회적 대화에서 타팽은 확신이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기원을 그 분께 두고 있다. 신앙의 확신에 있어서 그의 호의에 대한 증거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을 진작시키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나 복음의 설교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바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고 참된 신앙에 그의 말씀의 증거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끄신다. 우리는 신앙과 회심에 대한 명령과 약속과 더불어 설파되는 복음을 신뢰한다.

타팽은 제 2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 시작하는 시점에 활동하였다. 그는 이 운동이 지녔던 종교개혁적 내용에 대한 순수한 본보기이었다. 제 2 종교개혁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대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은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브라켈(Father Brakel)이었다. 그의 실제적 교의학 저작은 적어도 개혁신앙을 지닌 네 세대 또는 다섯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 대한 훌륭한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끌었다. 따라서 신앙의 확신과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그의 견해는 중요한 것이다.